

전도서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קֹהֶלֶת (디브레 코헬레트)로 설교자 또는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뜻이며, 1절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언급이 있다. 코헬레트는 소집한다는 뜻을 갖은 동사로부터 파생되었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회중의 소집자라는 뜻인 Ekklēsiastēs로 명명되었다. 여기서 Ekklēsi(a)는 회중 곧 교회라는 뜻이며 astēs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형 접미사이다. 이에 준하여 영어성경은 Ecclesiastes(assemblyman 또는 preacher)로, 한글성경에는 전도서(傳道書)라 명명되었다.

전도서의 저자는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에 근거하여 솔로몬이라는데 큰 이의가 없다. 그 외에도 전도서에는 저자가 솔로몬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다 – 1:16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다, 2:4-9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처첩을 많이 두었다. 17세기 이후부터 히브리어 문체의 차이 또는 전도서에 나오는 억압과 불의한 사회적 배경 등을 들어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왔지만 정확히 누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저자는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일을 성취하여도 인생의 무상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이를 여러모로 설파한 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며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끝을 맺고 있다.

1장

1. 전도서는 누구의 말씀인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 1:1)
2. 무엇이 헛된가? 모든 것 (전 1:2) ⇒ 헛되다는 표현이 전도서에만 37회 등장한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 33회 등장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많이 언급된 데에는 철학적 측면보다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다 – 전 1:2, 전 12:8. 헛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נִבְאַל(헤벨)은 숨이라는 뜻으로 일시적이라 덧없고 빈약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형 가인에 의해 덧없이 일생을 마친, 인류역사 최초로 살해당한, 아벨의 이름이 바로 이 헤벨이다.
3.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있는 것은? 땅 (잠 1:3)
4. 해는 뜨고 지되 어디로 빨리 돌아가나? 떴던 곳 (전 1:5) ⇒ 자연의 순환에 관한 첫번째 예증
5. 바람은 이리 저리 불고 돌지만 어디로 돌아가나? 불던 곳 (전 1:6)
6.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어디로 연하여 흐르나? 그리로 (전 1:7) ⇒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그 발원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7. 눈과 귀는 보고 들어도 어떠한가? 족함이 없고 가득 차지 아니한다 (전 1:8) ⇒ 만물의 피곤함은 수고와 고생의 결과인데 세상 일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8. 해 아래 무엇이 없나? 새 것 (전 1:9) ⇒ 자연의 끝없는 순환은 같은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것을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새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11절 참조.

9.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떠하다 하였나?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전 1:12-13) ⇒ 본문 전반부에 언급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감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이해하는 지성의 근본이 되는 품격을 뜻한다. 뒤따라 언급된 지혜는, 그러한 품격에 바탕을 두어,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10.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어떠하다 하였나? 번뇌도 많고 근심이 더해진다 (전 1:18) ⇒ 이것은 무지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불완전성에 회의를 갖게 된다. 17 절과 연관하여 그런 지혜와 지식을 더 알고자 하여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고백이다. 인간은 하나님 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하나의 단계이다.

2 장

1. 전도자의 웃음과 희락에 대한 관점은?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무슨 소용이 있나? (전 2:2)
2. 전도자는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떻다고 하였나?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해 아래 무익한 것 (전 2:11) ⇒ 전도자는 3 절부터 10 절까지 자신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을 나열하였는데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이다.
3.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 (전 2:12) ⇒ 왕의 후계자가 무엇을 하던 이미 그가 해보고 헛되다고 한 일들일 것이다.
4.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무엇이 무엇보다 뛰어남과 같은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전 2:13)
⇒ 빛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준다. 반면에 어두움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어두움 속에서는 타락과 범죄가 횡행한다. 여기서 빛과 어두움은 영적 또는 도덕적 양상을 직접적으로 비유하였다고 보인다 – 빛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이고 어두움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흥미로운 사실은 빛을 가리면 어두움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진다. 그러나 빛에 어두움을 비출 수는 없다.
5. 지혜자의 눈은 어디에 있나? 머리 속 (전 2:14) ⇒ 영적인 눈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가는 지혜를 갖게 된다. 13 절 및 본 절 중반부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6.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은 모두 어떠한가? 모두 같다 (전 2:14) ⇒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다 같다 하였다. 15-16 절에서 지혜가 있는 것도 헛되고 죽음은 결국 같다고 말하고 있다.
7. 전도자가 사는 것을 미워한 이유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 2:17)
8.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 이유는?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 주게 되어 (전 2:18) ⇒ 11 절에서 언급했던 것을 18 절부터 23 절까지 조목 조목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9. 무슨 이유로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이 헛되다 하였나? 지혜자일지 우애자일지 알 수 없는 자가 모든 결과를 관리하게 됨으로 (전 2:19),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줌으로 (전 2:21)

10.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전 2:24) ⇒ 수고하는 것은 수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의 결과로 얻는 만족을 뜻한다 – NIV: satisfaction in their own toil, KJV: enjoy good in his labour. 전도자는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갖게 됨을 24 절 후반부에 고백하고 있다.

3 장

1. 범사와 천하 만사에 각각 무엇이 있나? 기한과 때 (전 3:1) ⇒ 2 절부터 8 절까지 여러 일들에 대하여 적합한 때가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2. 누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였나? 하나님 (전 3:10) ⇒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설명이 11 절부터 15 절까지에 서술되어 있다.
3.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전 3:14)
4.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찾으시나? 이미 지난 것 (전 3:15) ⇒ 전 1:9 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하나님이 더해졌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숨어있다.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은 심판날에 정죄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낸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과거와 미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5. 해 아래 (악이 없어야 하겠지만) 악이 있는 두 곳은?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 (전 3:16)
⇒ 재판하는 곳은 재판하는 장소 즉 재판장, 정의를 행하는 곳은 그 재판장에서 정의롭게 판정해야 할 재판관을 가리킨다.
6.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 깨닫게 하려 (전 3:18) ⇒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7. 사람이나 짐승이 (결국) 동일하게 당하는 일은 무엇인가? 죽음 (전 3:19) ⇒ 호흡이 끊어져 죽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 20 절에 죽은 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같다고 하였다.
8. 인생들의 혼과 짐승들의 혼은 각각 어디로 간다는 가설을 묻고 있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전 3:21) ⇒ 21 절 후반부의 '누가 알랴'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19-20 절에 언급하였듯이, 사후에 육체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에게 동일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사후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4 장

1.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권세와 위로자 (전 4:1)
2. 전도자는 산 자들보다 누가 더 복되다 하였나?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전 4:2) ⇒ 1 절과

연결하여 위로함 없는 권세아래 학대 받는 것보다 오래 전에 죽은 것이 차라리 낫다는 뜻.

3.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출생하지 않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전 4:3) ⇒ 해 아래 즉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권세자들의 학대와 부조리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들어내고 있다.
4. 사람이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나? 이웃의 시기 (전 4:4) ⇒ 이 부분의 원문이 애매해서, 사람이 수고하여 무엇을 성취하여 그 결과로 이웃의 시기를 받는다는 해석과, 그 반대로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여 수고를 다 하여 성공했다는 해석도 있다. NIV: all achievement spring from one person's envy of another, KJV: a man is envied of his neighbour. 어떤 해석이던 그런 수고의 결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결론이다.
5.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초래하나? 자기의 몸만 축낸다 (전 4:5) ⇒ 개역성경에 '자기 살을 먹느니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로 바뀌었다. 참고 NIV: ruin themselves, KJV: eatheth his own flesh. 4 절과 6 절의 기조는 성공이 헛되고 게으름뱅이가 오히려 낫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게으름뱅이의 문제를 5 절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살을 실제로 먹는다는 것은 극단적이 상황이며 자신을 망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 시 27:2 또는 미 3:3에 나오는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파멸과 핍박을 뜻한다.
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나은 것은?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 (전 4:6) ⇒ 4 절에 이어 수고에 따른 성공의 허무함을 강조했는데, 게으른 자의 정당화(fool's defense)로 본다.
7. 어떤 사람이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며 하는 그의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 말하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나? (전 4:8) ⇒ 가족이 없으니 응당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양 불평하는 모습이다.
8.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점 4 가지는? 1. 좋은 상을 얻을 것 (전 4:9), 2. 혹시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를 일으킨다 (전 4:10), 3.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전 4:11), 4.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다 (전 4:12) ⇒ 이 부분의 결론이 그 유명한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그 보다 하나를 더한 셋이라는 수의 강함과 상대적인 완전성을 강조하였다. 이 구절이 삼위일체 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예시라는 의견도 있지만 근거 없는 진부한 해석이다.
9.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은 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전 4:13) ⇒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은 충언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다.
10.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어디에서 나와 왕이 되었나? 감옥 (전 4:14) ⇒ 여기서 '그'가 13 절에 나오는 젊은이인지 왕인지 확실치가 않다. 한글성경에는 '그'가 한번 나오고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영어성경에는 '그(he)'가 두 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13 절에 젊은이와 늙은 왕이 언급되어, 14 절에서도 이 두 인물이 대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 지혜로운 젊은이는 왕이 되고 늙고 둔한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가난해졌다. 반면에, 15 절과 연결해서, '그'는 젊은이를 가리키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혜로워 늙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 KJV: For out of prison he cometh to reign;

whereas also he that is born in his kingdom becometh poor, NIV: Then youth may have come from prison to the kingship, or he may have been born in poverty within his kingdom.

13 절부터 16 절까지의 이야기는 누가 어떻게 왕이 되고 쫓겨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위에 있는 것도, 후에 오는 자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16 절) 다 헛되다는 것이다.

5 장

1.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삼가라고 하였나? 발 (전 5:1) ⇒ 발을 삼가라는 것은, 신발을 벗거나 발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2.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전 5:1)
3.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전 5:2) ⇒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한한 간격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절 후반부에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4. 걱정이 많으면 무엇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무엇이 나타나나? 꿈과 우매한 자의 소리 (전 5:3) ⇒ 여기서 꿈이라 함은 많은 근심으로 인한 불면증 및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혼미한 상태를 뜻한다. 말이 많은 것은 2 절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7 절 참조.
5.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전 5:4) ⇒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신 23:21-23 참조.
6.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 (전 5:5)
7.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말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 (전 5:6) ⇒ 말로 서원하고 나중에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행위. 본문에서 육체라 함은 자신을 가리킨다.
8. 빈민을 학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이유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기 때문에 (전 5:8) ⇒ 관리들이 부패하여 백성들이 학대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데, 그 관리들도 자기보다 높은 관리에게 같은 대우를 받는다.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이는 하나님께서기에 그 모든 관리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9. 노동자와 부자의 차이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나 부자는 자지 못하다 (전 5:12)
10. 재물을 소유한 자에게 큰 폐단이 되는 일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전 5:13) ⇒ 12 절에 이어 본문을 하나의 명제로 제시하고 14-17 절까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1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뜻은?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전 5:18) ⇒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며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19-20 절은 그러한 즐거움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다.

6 장

1. 바라는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 아니하셨으므로 (전 6:2) ⇒ 모든 물질과 존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3 절과 연결시켜 보면 그러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할 때 누리고 즐기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2. 사람이 자녀가 많고 장수하여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자가 그보다 나은가? 낙태된 자 (전 6:3) ⇒ 사산(死産)된 자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지만 고통과 실망도 당해보지 않았다. 4-6 절 참조.
 3. 사람의 수고는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입 (전 6:7) ⇒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나 식욕은 끝이 없다. 입은 단순히 먹을 것을 뜻하기보다는 욕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식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심령이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먹을 것(욕망)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심령을 채울 길은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4.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있나? 없다 (전 6:8) ⇒ 이 명제는 7 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본문 후반부는 같은 맥락에서, 가난한 자가 사람들 앞에서 잘 행동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기본적 욕망을 채우는데 무엇이 더 유익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5.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은가? 나으나 이것도 헛되다 (전 6:9) ⇒ 본문은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7-8 절에 이어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욕구를 채울 물질이 있어서 보는 것과 없어서 상상만 하는 상황을 비교하였는데 결국 둘 다 헛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6.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많은 일들 (전 6:11) ⇒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מְלֻאָה(데바림)은 말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어떤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7 장

1. 좋은 기름보다 나은 것은? 좋은 이름 (전 7:1) ⇒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향료 또는 고약이라는 뜻인데 기름이 주 원료였다. 한편 이름과 기름으로 번역된 두 단어는 히브리어 שמן(셈)과 שמן(미셈)으로 발음이 비슷한데 한글 번역도 그것을 살린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은 이름이란 존경받는 삶을 산 사람이 받는 좋은 평판을 뜻한다.
2.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은가? 낫다 (전 7:1) ⇒ 본문 앞 부분에 나오는 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이 지났으며 죽었지만 그의 좋은 평판은 유지된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사람의 앞길은 불투명한 인생과 그에 따른 수고일 뿐이다.
3.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초상집 (전 7:2) ⇒ 1 절의 연장인데 죽은 후에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삶을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할 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된다.
4.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전 7:3) ⇒ 본문의 슬픔은 감상적인 또는 애도의 슬픔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말한다. 이러한 슬픔은 사람의 사고를 성숙시켜 주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한다. 반면에 말초적인 기쁨과 웃음은 경박하고 영적 성숙의 기회가 희박하다.

5. 무엇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나? 탐욕 (전 7:7)
6.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을 이유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기 때문에 (전 7:9) ⇒ 평온을 잃은 노함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특히 우매한 자인 경우 평생 기억할 것이다.
7.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이유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전 7:12) ⇒ 지혜와 돈은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유사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부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뜻한다.
8.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 되돌아 보라 (전 7:14) ⇒ 본문에 되돌아 보라 함은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궁함을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으라는 뜻이다. 또한 사람이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9. 전도자가 보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 (전 7:15) ⇒ 그뿐 아니라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17 절에 지나치게 의인도 지혜자도 악인도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18 절에 어떤 일이던 과도한 것을 피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16 절은 의롭다고 의인임을 자처하는 일은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17 절에 악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도덕한 것에 더 중점이 있으며 부도덕한 삶은 명을 재촉함을 강조하고 있다. 18 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는 뜻이다.
10. 무엇이 지혜자를 성읍 기운데에 있는 열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나? 지혜 (전 7:19)
11.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있나? 없다 (전 7:20)
12.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전 7:21) ⇒ 너무 귀 기울이고 신경 쓰지 말라는 뜻.
13. 지혜로 시험하여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는데 어떠했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다 (전 7:23) ⇒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보았지만 지혜는 너무나 어렵고 나의 능력 밖이라는 뜻이다.
14. 전도자는 이미 있는 것은 어떻다 하였나?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 7:24) ⇒ '이미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다. NIV: Whatever exists, KJV: That which is. 고전적 해석은 KJV의 번역과 같이 '그 무엇'으로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물리적인 형태 및 그것을 넘어 존재하는 것들과 그것들의 연관성이라고 본다. 그에 비해 현대적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
15.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어떠한가? 사망보다 더 쓰다 (전 7:26) ⇒ 본문은 들릴라로 인해 죽음을 맞은 삼손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 샷 16. 전도자 곧 솔로몬은 사악한 이방 여인의 위험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 왕상 11:1, 4, 11.
16. 전도자가 계속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은? (온전한) 여인 (전 7:28) ⇒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온전한 한 남자'라는 뜻이 있다. '천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흔치 않다는 뜻이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아주 없다라기 보다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자들은 온전한 한 남자가 아담이라고 보고,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첨으로 거느리고 살며 겪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진로를 산 경험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으로 본다.

8 장

1.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게 하나? 광채가 나게 한다 (전 8:1) ⇒ 지혜로 인한 내적 평안함이 얼굴에 나타난다.
2.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전 8:2) ⇒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으로 세워졌다 – 삼상 10:1 참조. 따라서 왕에게 복종할 것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 왕상 2:43, 왕하 11:17, 대하 36:13.
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을 이유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전 8:3) ⇒ 본문에서 악한 것이라 함은 왕에게 음모나 반역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왕이 하나님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2 절을 볼 때 이 땅의 왕이 자명하다.
4. 왕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는 이유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음으로 (전 8:4) ⇒ 이 같은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한 기록이 있다 – 롬 9:12, 사 45:9.
5. 무슨 일이든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무엇이 어떻게 임하나? 화가 심하게 (전 8:6) ⇒ 후반부의 해석이 쉽지 않다. 7 절과 연관하여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본다. 1. 미래를 알 수 없어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하여도, 만물에 때와 판단이 있어 화를 입을 수 있다. 2. 화를 입는 그 자체에도 때와 판단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뿐이다.)
6.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어떻게 하였다? 해롭게 하였다 (전 8:9) ⇒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것은 군주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원문에는 해로움을 당한 자가 궁국적으로 군주 자신이라는 뜻이 있다 – his own hurt. 반면에 해로움을 당한 자는 백성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백성을 해하는 군주는 결국 '자신을 해한다'라는 확대 해석도 있다.
7. 악인들은 장사 지낸 뒤 어떻게 되었나? 거룩한 곳을 떠나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진다 (전 8:10) ⇒ (권력이 있는) 악인은 성대한 장례를 치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 여기서 '잊어버린'으로 번역된 원어는 '칭찬 받는다'라는 뜻도 있다 – NIV: receive praise, KJV: forgotten. 어떤 번역이든 헛된 것이라는 결론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8.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전 8:11)
9.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되나? 장수한다 (전 8:12) ⇒ 11 절, 12 절 후반부와 13 절을 볼 때 죄인이 장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10.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이 벌을 받는 일이 있나? 있다 (전 8:14) ⇒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 마땅한 벌을 의인이 받는 일도 있다는 뜻이다.
11. 사람이 해 아래에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나은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전 8:15) ⇒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주어진 수고를 기쁘게 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9 장

1.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전 9:1)
⇒ 본문 전반부에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선포하였다. 그러한 행위에 따른 미래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 만이 아신다.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였나? 일반이다 (전 9:2) ⇒ 본문에 모든 사람의 유형이 다각도로 나열되어 있다. 이 구절의 전통적 해석은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다는 것이다. 즉 의인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고 악인이라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절과 연결하여 확대하면 모든 사람들은 같은 운명, 곧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NIV: All share a common destiny, KJV: All things come alike to all.
3.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악 (전 9:3)
4. 산 개가 죽은 무엇보다 낫다고 하였나? 사자 (전 9:4)
5.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이유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전 9:7)
6.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라 하였나? 희게 (전 9:8) ⇒ 흰색은 순결과 기쁨의 상징이다. 천사들은 흰옷을 입었으며(막 16:5, 요 20:12), 예수님은 성자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하셨고(계 3:4-5), 요한은 영생을 염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계 6:11, 7:9).
7. 스울에 없는 것은? 일, 계획, 지식, 지혜 (전 9:10) ⇒ 스울은 개역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었다. 히브리어로 스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땅속을 뜻하는데 롬 10:21에 묘사된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설명된다.
8.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훌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전 9:12)
9. 지혜가 힘보다 나오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어떻게 되었나? 멸시를 받았다 (전 9:13-16) ⇒ 15 절에서 어느 작은 성읍이 가난한 지혜자에 의해 건진 바 되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였다.
10.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나? 죄인 (전 9:18)

10 장

1.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어떻게 만드나? 악취가 나게 만든다 (전 10:1) ⇒ 본문은 지혜와 존귀보다 한 번의 실수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나? 오른쪽 (전 10:2) ⇒ 일반적으로 오른쪽 손은 연장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손으로 행동이나 보호의 손으로 여겨졌다. 구약에 왼쪽과 오른쪽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 예는 없다. 예수님은 심판 날에 의인은 오른쪽(마 25:31-34), 저주받은 자들은 왼쪽(마 25:41)에 구별하여 둔다고 말씀하시었다. 구약에서는 주님의 오른쪽이 은혜와 존귀 및 보호의 자리로 묘사되어 있다 – 시 16:8, 11, 시 110:5.

3. 공손함이 어떤 혜택을 보게 하나?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전 10:4)
4. 전도자가 본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전 10:5) ⇒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와 세계, 우매한 지도자의 잘못에 의해 파급되는 파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5.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어떤 자가 낮은 지위에 앓나? 부자들 (전 10:6) ⇒ 여기서 부자들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귀족 출신으로 지도자에 합당한 품격을 갖추고 있지만 우매하고 포악한 자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절에 한 예로 종이 말을 타고 고관이 걷는 것을 보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 솔로몬 당시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는 대단한 일이었다 (왕상 10:28). 말은 비싸기도(왕상 10:29) 하여 특권층 만이 탔다 (예 6:8, 렘 17:25). 7 절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6.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날을 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힘이 더 듦다 (전 10:10)
7.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누가 소용없어지나? 술객 (전 10:11) ⇒ 여기서 술객은 뱀을 길들여 부리는 사람을 뜻한다. 그가 뱀에게 마법을 걸기 전에 물려버리면 아무리 뱀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8. 우매한 자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결말은 어떠한가? 심히 미친 것 (전 10:13)
9.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어떻게 하나? 피곤하게 할 뿐이다 (전 10:15)
10. 어떤 나라에 화가 있나?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전 10:16)
11. 게으른즉 무엇이 내려앉나? 서까래 (전 10:18)
12. 잔치는 무엇을 위하여 베푸나? 희락 (전 10:19)
13. 포도주는 무엇을 기쁘게 하나? 생명 (전 10:19)

11 장

1. 떡을 어떻게 하면 후에 도로 찾게 되나? 물 위에 던지면 (전 11:1) ⇒ 물에 던진다는 것은 해상 교역(交易)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현숙한 여인을 무역선에 비유한 잠 31:10, 14 참조.
2. (떡을)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 이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으로 (전 11:2) ⇒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1 절의 연속으로 떡을 주어로 본다. 교역을 한 곳으로 국한하지 말고 여러 곳과 하라는 뜻이다. 일곱이나 여덟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숫자를 가리키며 비슷한 예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한다 (욥 5:19, 잠 6:16, 30:21, 암 1:3, 미 5:5).
3. 무엇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나? 구름 (전 11:4) ⇒ 본문에서 바람과 구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뜻하며 그런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뜻이다. 5 절과 6 절에 이러한 전도자의 의중이 한 번 더 강조되어 있다.
4.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어떤 일인가? 즐거운 일 (전 11:7) ⇒ 본문은 빛은 아름답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빛과 해를 문자 그대로, 또는 젊음, 삶, 생명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7 절의 즐거운 일에 이어, 8 절에는 캄캄한 날들이 언급되는데 이는 사는 동안 겪는 고난과 역경, 노년의 삶, 그리고 죽음 등으로 이해한다.

5.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나? 심판하신다 (전 11:9) ⇒ 삶을 보람 있고 기쁘게 사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쾌락에 빠진 방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12 장

1. 청년의 때는 어느 때인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전 12:1) ⇒ 곤고한 날은 노년을 가리킨다.
2.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나? 너의 창조 주 (전 12:1) ⇒ 활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부터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다. 2 절에 언급된 해, 빛, 달과 별들은 인생에 누리는 기쁨을 상징하며, 비와 구름은 고난을 상징한다.
3. 그런 날, 즉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떤다 (전 12:3) ⇒ 3 절부터 6 절까지의 표현은 문자 그대로, 또는 노년에 육체가 쇠약해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려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해석과 문자 그대로 집을 지키던 하인이 무슨 일에 놀라고 땀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1-2 절에 비추어 전자의 해석에 무게가 더 실린다. 문자적 해석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데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노트 14 번까지는 곤고한 날 즉 노년이 되었을 때에 관한 비유이다.
4. 힘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구부러 진다 (전 12:3) ⇒ 힘 있는 자들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다. 구부러(굽어) 진다고 번역된 단어는 절한다는 뜻도 있으며 여기서는 허리가 굽어진다는 뜻이다.
5. 맷돌질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숫자가) 적어 (맷돌질이) 그친다 (전 12:3) ⇒ 치아
6.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나? 어두워진다 (전 12:3) ⇒ 눈과 시력
7. 길거리 문들은 어떻게 되나? 닫혀진다 (전 12:4) ⇒ 입과 입술
8. 맷돌 소리는 어떻게 되나? 적어진다 (전 12:4) ⇒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때 나는 소리
9.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 일어난다 (전 12:4) ⇒ 아침 잠이 없어 새소리를 듣고 깬다.
10. 음악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쇠하여 졌다 (전 12:4) ⇒ 목소리
11.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어떻게 하나? 두려워한다 (전 12:5) ⇒ 다리가 약해지며 실족하기 쉬워 노인들은 조금만 높은 곳도 어려워한다. 같은 맥락으로 길에 나가는 것도 삼가게 된다.
12. 살구나무는 어떻게 되나? 꽃이 핀다 (전 12:5) ⇒ 살구나무의 꽃은 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 연분홍색으로 피었다 눈같이 흰색으로 변하며 떨어진다. 이는 깡 마른 백발노인을 연상시킨다.
13. 메뚜기도 무엇이 되나? 짐이 된다 (전 12:5) ⇒ 성경에 메뚜기는 작고 하잘것없는 것의 상징으로 언급되었다 – 민 13:33, 사 40:22. 노년이 되면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된다.
14. 무엇이 풀리고 깨지나?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진다 (전 12:6) ⇒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은 줄과 금 그릇을 인체의 중요 장기인 척추와 머리로 보는 것인데, 앞의 비유들과 비교할 때 너무 직접적이라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주류적인 해석은 이 두가지를 합하여 천장에 매달아 놓은 등으로 보는 것이다. 은 줄은 등을 매단 끈, 금 그릇은 등의 기름을 담고 있는 통으로 본다. 기름 통이 깨지면 등불, 즉 생명은 꺼지고 만다. 6 절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은 항아리를 가지고 물 길으러 샘 가에 갔는데 항아리가 깨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기 위한

두레박의 도르래 바퀴가 오래되어 깨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등불과 같이 귀중하지만 질그릇 항아리와 같이 쉽게 깨질 수도 있다.

15. 흙과 영혼은 각각 어디로 돌아가나? 흙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전 12:7)
16. 지혜자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은가? 찌르는 채찍 (전 12:11) ➔ 찌르는 채찍은 나무 끝에 뾰족한 쇠조각을 붙여 가축을 물 때 사용하는 도구를 뜻한다. 찌르기도 하고 화초리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 덕에 가축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다.
17.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은가? 잘 박힌 못 (전 12:11) ➔ '회중의 스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회중으로 번역된 원어 **תִּשְׁאַלְךָ**(아스폿)에 모음(collection) 또는 수집이라는 뜻이 있고, 10 절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다고 된 점으로 미루어, 이를 사람이라기보다는 슬기로운 격언 또는 잠언의 모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수집된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이 기억에 남고, 지혜들을 한데 모아 어떤 통일성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본문에서 한 목자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
18.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 하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전 12:13)
19.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시나?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전 12:14)